

## 정부,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메타버스산업 활성화 예상 -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일종의 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 산업은 최신 과학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신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형화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가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앞으로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 1. 배경

메타버스란 VR·A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단일하고, 보편적이며, 몰입 가능한 가상세계로 구현하고자 하는 구상을 의미하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소셜 기능을 중시하는 3D 가상세계 네트워크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개념은 점점 의미가 확장되어, 현실과 가상 세계가 융합된 공간에서 상호작용과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이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산업이 등장하게 되면 관련 규제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 1. ICT 규제샌드박스, 2020. 8.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을 선보이며 산업의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3. 3. 2. 메타버스 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다수 참여하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2. 내용

혁신안의 기본원칙은 자율규제·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으로써, 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분류	과제
범분야 공통 적용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제 마련
		• 메타버스 분야 자율규제 체계 마련 및 이행
		•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준 제도 도입
		•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
		• 초고주파수 대역 전자파적합성 기준 정비

	데이터 활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 공간정보 해상도 공개기준 규제추가 완화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	
	공정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	
		• 국경 간 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사회적 수용과 이용자 보호	•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마련	
		•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 차별 없는 포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지침 마련 및 확산	
	특성분야별 적용 과제	엔터테인먼트·문화	•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정 도입 검토			
교육		•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확산을 위한 시설·설비 규제 완화	
		•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교통		•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 착용형 영상표시장치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차량용 AR HUD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	
디지털 거래·유통		•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	
		•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금융		• 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부문		• 경찰·소방서의 VRAR 장비 관리·운영 기준 마련	
		•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 VRAR 기기의 영내 사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3. 시사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주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구축하여 과제의 이행여부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행여부 점검 중 논의를 통해 기존 과제를 수정 및 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격년 단위로 주기적 재설계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주도하는 이유는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때문입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인 PWC社에서는 2019. 11. 전 세계 VR/AR시장 규모가 2025년 4,764억 달러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95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는 2022. 9. 가상자산경제·VR 하드웨어·클라우드와 같은 컴퓨팅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메타버스 산업이 2030년 최대 3,900억 달러(한화 약 50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정부의 노력이 시너지를 만들어 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 규제 개혁이 관련 업계의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 메타버스산업을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우는 메타버스, 방송정보통신, 개인정보/정보보안, 신기술, 환경규제, ESG 등 새로운 산업과 분야에 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도움을 적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e@yoonyang.com](mailto:kleee@yoonyang.com)

### 이수경

T. (+82) 2 6182 8132

파트너변호사

E. [sgyi@yoonyang.com](mailto:sgyi@yoonyang.com)

### 강석준

T. (+82) 2 6182 8505

변호사

E. [kangsj@yoonyang.com](mailto:kangsj@yoonyang.com)